
2021년 제2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7. 16. ~ 7. 2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7. 16.	시청률	0.000

【총 평】

구례 화엄사의 '삼신불 좌상'이 국보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비롯해 오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 시의성과 화제성이 충분한 내용들로 구성했다. 또,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애관극장',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치유농업', 지하철역 나만의 창고, 모란장식 왕실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 구례 화엄사 초대형 '삼신불 좌상' 국보 된다
구례 화엄사의 목조 삼신불 좌상이 국가보물로 인정받은 내용을 취재했으며, 아름다운 화엄사와 주변 경관도 좋았다. 17세기에 제작된 불교 조각 중 삼신불로서는 유일한 작품이므로 불교사상 연구와 미술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아 국보로 지정되었다.
- 126년 역사의 '애관극장' 시민들이 지킨다.
긴 역사를 가진 애관극장이 경영난으로 매각 위기에 놓여있어 이에 인천시민들이 극장을 보존하고자 한다. 인천시민들의 추억이 쌓여있는 애관극장이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오래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 "경기민요에 빠졌어요." 멕시코 소리꾼
한국에 유학 온 난시 카스트로는 우리의 민요에 매료되어 4년째 한국에서 경기민요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학교 수업과 공연도 하며 실력을 쌓고 있는 난시는 경기민요 소리꾼이 되어 스페인어권에서 국악을 스페인어로 알리는 전도사를 꿈꾸고 있다.
- 2년 만에 만난 전우 '호주 참전용사의 날'
호주 멜번에서 있었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모임을 소개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2년 만에 만남을 개최하였다. 이제는 혼자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참전용사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함께 모였다.
- 치매 예방에 마음 안정까지 '치유농업' 호응
농장에서 식물을 가꾸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치유농업 활동을 소개하였다. 특히 경증치매 노인이 오감자극 활동을 통해 인지능력을 키워 치매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각 농장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고장 난 장난감 수리하는 '생생대장간'
경기도 안산의 '생생대장간'은 장난감에서부터 생활용품, 바이크까지 수리해주고 있다. 안산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점검과 수리, 부품 교체 등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수리기술 관련 어르신 전문가를 채용하여 실버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의 재활용 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1. 7. 16.	시청률	0.000

【총 평】

‘태양과 바람, 바다가 키운 보석-전남 영광’편에서는 영광의 특산물인 영광 천일염이 염부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로 탄생하는 ‘삶의 현장’ 과정을 담아낸 기획이 뛰어났다. 좋은 바닷물이 키우는 보석의 결정체가 가득한 전남 영광에서 요리와 건강유지의 필수품인 천일염이 탄생하기까지 태양과 바람의 외부 환경과 함께 염부의 땀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운 점이 돋보였다. 또 소금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300회 이상의 삽질 등 고된 노동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특히 염수-채염-변화 등 3가지 단락으로 구성해 소금이 탄생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내 몰입감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 시켜 만든 소금을 천일염이다. 건강에 좋고 음식맛을 더해 주는 천일염의 생산 과정과 염부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현대화 되고 간소화 되는 세상 속에서 천일염은 인간에게 보석 같은 존재이다. 전남 영광의 천연 갯벌에서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이고 바람과 햇볕으로 자연 증발시켜 천일염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전남 영광은 양질의 천일염을 얻기 위한 조건인 여름철의 햇볕과 좋은 바닷물, 맑은 해풍 등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천일염에서도 천연 갯벌에서 만드는 갯벌 천일염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2%에 불과 하다. 염부에게 소금은 땀과 기다림의 보석같은 결정체이다. 좋은 천일염을 만들기 위해 증발지에서 바닷물을 줄여 최적의 염도 22~25 도를 만든다. 바닷물이 1,2차 증발을 끝내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적당량의 소금을 넣고 소금이 생성되게 하는 결정지로 보내지게 된다. 이곳에서 간수는 27도가 되면 결정체가 떠올라 소금꽃을 피운다. 생성된 소금은 염부의 고된 채염 작업을 거쳐 창고로 들어가기 전 물 빼기 작업을 거친다. 그리고 소금은 다시 한번 바람이 통하는 목조 저장 창고에서 마지막 간수를 뺀다. 전남 영광 특산품인 천일염은 소금 알갱이가 고르고 우유빛이 나며 손으로 비빌 때 잘게 부스러지는게 특징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특산품인 영광굴비는 영광 천일염으로 절여 생산된다.

사운드멘터리답게 영상과 소리를 섬세하게 표현해 흡인력을 높였는데, 바닷속에서 피어나는 순백의 소금꽃 염전, 영광 갯벌, 천일염으로 영광굴비 소금절임, 삼복더위와 싸우는 채염작업, 염전 전경과 갈대 흔들림 등의 영상표현과 염전에서의 작업 소리, 조기에 소금 뿌리며 삽질하는 사운드, 채염작업 사운드 등의 소리를 전달했다.

“소금이 황금이라고 집중하면서 일합니다.”, “갈대가 흔들릴 때마다 짬내가 풍겨 나온다.” 등 내레이션이 전혀 없이 사운드와 영상, 자막으로 이끈 다큐 포맷 이 신선하고 흡인력을 높이는 요소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7. 17.	시청률	0.185

【총 평】

"행복하냐고요? 바다를 가졌잖아요!"편은 강원도 양양 바다에서 서핑 강사를 하는 남편과 아내의 귀여 7년차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양양 해변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곳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해양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서핑 이야기로 흥미와 주목을 끌었다. 서핑 입문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등에 대한 환경 교육을 강조하는 점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의미 있었다.

바다와 서핑이 좋아 남편과 함께 귀어를 선택한 아내가 임신과 육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핑과 멀어지면서 친환경비누 제작자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개연성 있게 잘 그렸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그들의 삶과 일맥상통해서 잔잔한 메시지를 주었다.

【구성 및 내용】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7번 국도를 따라 1km가 채 되지 않는 아담한 남애일리 해변은 서퍼 부부의 일터이다. 일층에는 서핑 보드 등 서핑 물품들이 잘 쌓여있고, 2층은 게스트 하우스로 마련되어 있다. 이 부부가 처음 서핑 가게를 시작한 2014년에는 근처에서 유일한 곳이었었는데 현재는 100여 곳으로 늘었다.

귀여 7년 차 부부의 양양살이를 담았는데, 전문 서퍼인 부부의 바다 사랑 이야기가 흡인력 있게 잘 전개됐다. 시작부분에서 “서핑은 기다림이에요. 바다에서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라며 서핑에 대한 주인공 부부의 철학과 양양의 시원한 바다가 몰입감을 높였다. “파도는 서퍼들에게 기회예요. 내가 준비가 다되고 내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했을 때 파도는 그만한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 파도를 내가 타지 못한다 해도 그다음 파도는 언젠가 또다시 와요.”라는 인생철학을 전했다.

국제서핑강사 자격증 보유자인 주인공은 서핑 강습을 하고,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좋은 일도 하고, 바다의 안전 지킴이하는 인명구조 요원이다. 바다 사랑이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친환경비누 공방을 운영하는 아내의 환경 존중 마음까지 바다에서 삶의 방향을 찾는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남편과 함께 귀어를 선택한 아내가 임신과 육아의 과정에서 친환경비누 제작자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잔잔한 여운을 주었다. 서핑과 바다를 좋아해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비누 형상이 인상적이었으며, 전직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이 돋보여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느껴지고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자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과 아이들과의 대화, 가족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이며 평화롭고 따뜻한 심성이 느껴져서 훈훈했다. 귀여 7년 차 부부의 바다 사랑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건강한 삶의 좌표가 되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7. 18.	시청률	0.009

【총 평】

한국판 뉴딜 1년, 일상에 찾아온 변화'편에서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 우리 생활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었다. 노년층의 디지털 환경 적응기, 데이터를 통한 축산업의 발전, 의학계의 변화, 공공데이터를 통한 장애인의 환경 변화, 그린 뉴딜 정책으로 녹색 발전 추진 등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전달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효과로 단순한 데이터에서 복잡한 데이터까지 공공정보화되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 디지털 뉴딜과 축산업

30만 두의 돼지를 5명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 돼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사람이 하던 일을 카메라와 CCTV가 대신해주므로 농장의 수익성도 올라가고 농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빠르게 확산되어 곳곳에 DNA(Digital, Network, AI)가 빠르게 융합되고 있다.

■ 디지털 뉴딜과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술은 의학분야에서는 희귀질환 유전자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원인 진단에만 몇 년이 걸리던 것을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한달 만에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닥터앤서 (Dr. Answer)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질병진단으로 의료서비스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 디지털 뉴딜과 4차 산업혁명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댐은 모여진 데이터를 정제하고 표준화해서 가공한 후 인공지능과 융합된 혁신서비스를 창출한다. 데이터가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원유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 산유국이다. 원유는 매장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므로 데이터 운영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탄소 중립으로 가야하는 위기의 지구를 인식하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차원에서나 지구환경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일상에서 쇼핑할 때에 용기를 재사용하고, 신문지도 재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폐기물 수거를 하는 방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의 불편함을 없앴다.

■ 지역균형 뉴딜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걸쳐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라이브커머스 채널과 비대면 라이브 공연과 전시를 실행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7. 18.	시청률	0.116

【총 평】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통치전략으로 ‘오빠’ 금지령 등 북한의 충격적인 주민 단속법의 실상을 공개하고 경제난과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기획이 뛰어났다. 또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제시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다.

‘친북’에서는 남한의 말과 문화를 금지하는 북한의 다급해진 통치전략과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잡기 속사정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수세적인 문화정책을 탈피해 전향적인 개방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 ‘이슈텔링’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흔들려 식량난과 빈부 격차가 심각해진 실상을 탈북 인사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국가와의 개방 등 교류가 시급하다는 점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해 주목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북한 경제난이 장기화되고 팬데믹이 겹친 현재 북한 상황을 분석하고 북한의 주민단속법 등을 살펴보았다. 남한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전하고 남한의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오빠라는 명칭을 부부와 연인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친, 여친 등의 표현과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행위 등 남한 문화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주민의 언어까지 단속하는 것은 북한체제가 위태롭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최근 공식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 모습을 전하며, 옆에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위치한 김옥주 성악가는 2018년 평양남북 합동공연때 이선희와 공연했다. 또,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는데 현송월 부부장도 인민배우 칭호를 아직 받지 못할 정도로 인민배우가 높은 칭호이고 김옥주 성악가가 행사에서 불려진 28곡 중 16곡을 불렀다고 전했다.

북한의 웨딩촬영을 통해 빈부의 격차를 알 수 있었고, 이미 자본주의 시장화, 상권의 독점화로 경제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개인회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작은 회사들이 존재한다. 특히 장마당 영향으로 자본주의 시장이 굳어지면서 독점상권이 생기기 시작했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이미 시장주의 체제로 옮겨져 빈부격차까지 심화되었다. 북한에도 웨딩 업체가 있어 드라마 형태로 야외촬영을 하며 공을 들이는데, 결혼식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의 현재 모습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관련해 북한도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며, 평양 등 큰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처참한 수준은 아니다. 북한이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개방이 최우선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7. 18.	시청률	0.008

【총 평】

전주시의 마을버스 운행 실시간 확인...시스템 자체 개발과 안산시 위험천만 '스몸비족'...바닥 신호등으로 해결 등 주민 불편 해소 사례가 돋보였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려했다는 점과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이 많아 사고위험이 큰 점에 유의해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소재였다.

마을버스 위치 실시간 확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부 담당자가 자체 개발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비용을 절감해 의미가 컸다.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닥을 응시하는 스몸비족이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위민행정이었다. 마을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추가 개발이 필요하고, 바닥 신호등이 근본적이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이 좋았다.

【구성 및 내용】

■ 마을버스 운행 실시간 확인...시스템 자체 개발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는 운행정보를 알 수 없는데 전라북도 전주시가 마을버스운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 했다. 바로온 마을버스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모두 전기버스라고 전했다. 특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부 운영담당자가 시민 입장에서 불편함을 찾아내, 프로그램을 만들어 5천만원의 시스템 개발비를 절약한 적극 행정이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지도에는 운행중인 버스가 한눈에 들어오며 마을버스 운행정보를 40초 단위로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 접근이 아직은 웹사이트로만 안내되어 앱 개발 등 후속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 위험천만 '스몸비족'...바닥 신호등으로 해결

안산시가 스마트폰을 하며 길을 건너는 '스몸비족'의 경우 위험이 커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고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로 특히 횡단보도에서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는데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위험성이 체감되었다. 중고등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이 해당된다고 조사 내용을 전했다. 또 미국 하와이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은 습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1. 7. 18.	시청률	0.194

【총 평】

‘다자녀가구에겐 특별한 혜택이 있다’와 ‘고교의무교육 시대! 장학금 지원과 혜택’은 출산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자녀를 낳을 시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혜택과 학비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되는 학비지원 정책은 국민 복지와 관련된 경제적인 혜택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였다.

다자녀 가구의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과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소개해주었다. 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비롯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과 대학생 대상의 SOS 장학금 및 국가 장학금 혜택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성 및 내용】

출생율의 저하로 사회적인 구조와 미래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3명이상 다자녀가구는 일상생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의 다자녀 가구 복지제도 안내서인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가이드북'의 6개 분야 20여 개의 지원 혜택을 소개해 몰입도를 높였다. 가이드북의 제목처럼 '하나보다는 둘, 둘 보다 셋'을 낳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정부의 인구정책을 위한 노력들을 전달했다. 특히 전기세를 비롯해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비, 자동차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가구의 각종 공과금 지원 혜택을 알려주었다. 여성 가족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지원과 자녀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연말정산세액공제 서비스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시대별 가족계획 표어와 포스터를 살펴보았는데, 1960-70년대 포스터는 “적게 낳아 잘 키우자”, “35세 이전까지 단산하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책이 반영되었다. 1980년대 포스터는 “둘도 많다”는 정책이었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많이 낳아 잘 기르자로 정책이 완전하게 바뀌었는데 시대별 표어의 변화를 보면서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청소년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비 문제로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자 한국장학재단이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중고생을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하여 지원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학업지원 정책인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조절하여 상환가능한 지원제도로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모두 사용하니까', '또래들에게서 소외되기 싫어서'라는 점에서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해 보자고 마무리했다.